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힘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의
길이에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의
삶이 말씀의 길으로
들어가야 함을 배웁니다.

믿음 하나로도 좋습니다.

신 윤 식

너무 무겁게 살지 않았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누구나 떠나야 할 시간에 서면
진정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려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갈까

애면글면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너무 빨리 흘러가버리는
짧은 하루의 연속이니
흘러가는 세월에서
도망칠 수 없어

봄과 여름이 지나면
여김없이 가을과 겨울로 향하고
그렇게 계절의 고개를 넘고 넘으며
우리의 불었던 청춘도
어느새 황혼의 그림자에 묻혀 간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믿음 하나로
살아온 날들이라고 해도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있으니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5.22

발행호수 제19권 21호

하 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은 그 어떤 연계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계와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혼란과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오전설교
마 22:23-33

부활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바치지 말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날에 다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한 이유 역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함께 영혼 불멸이나 천사의 존재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세상의 반응 또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또한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냉소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 부활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그들이 말하는 '예수 정신' 일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정신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도 또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며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히

요구되는 것은 말씀의 세계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모순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명시된 시형제 결혼법을 문제 삼아 질문을 하였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어린아이로 죽었다면 어린아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외모 그대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문제 삼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은 말한 대로 시형제 결혼법으로 인한 부활의 모순입니다. 시형제 결혼법은 형이 결혼하여 후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하였다면 나중에 부활하였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한 여인이 일곱 형제와 결혼하였을 때 부활한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하느냐는 의문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기 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지 않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두개인이 제기하는 문제처럼 한 여자가 일곱 형제와 결혼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면 부활과 이 문제는 모순된 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기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29-32)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오해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문제뿐이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해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등 모든 문제를 오해로 시작합니다. 오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두개인과 같은 문제 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의 원인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 역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해에 파묻혀서 말씀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해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오해했습니다. 때문에 육체의 관계가 부활의 세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는 육체의 관계와도 무관한 세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질서와 삶의 방식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육신과 상관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으로 관계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감으로써 후손을 이어가는 방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어떤 내

용이 있는지 잘 안다고 해도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성경을 모른 사람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도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접합니다. 나의 복과 나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밖에 모르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영적인 세계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로 끌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죽음이 없는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자기 육체와 구원을 위한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에 매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에서의 '나'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삭과 야곱 또한 동일합니다. 그들은 분명 육신으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가지고 산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방식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은 육신이 생존해 있는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가능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죽음 이후에 일어날 먼 나중의 일로 밀쳐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단지 육신을 벗는 것일 뿐,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활의 세계에 속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또한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일뿐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부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확실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성경을 안다면 관심은 부활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른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이 잘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은 자들의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보이는 것들을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즉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궁핍해도 부활의 세계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부활의 능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나아가게 되면 그 심령은 점차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한 산자입니다.

신 자에게 신앙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경험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경험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고도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대개 생각하는 신앙경험, 즉 병 고침이나 방언과 등과 같은 것은 참된 신앙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한계성을 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 고침이 있다고 해도 모든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자에게 있어야 할 참된 경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난다면 소경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저 한 개인에게 있었던 일을 듣는, 말 그대로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살피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은 실감하시고 경험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홀로 살아가는 삶으로 더 선명히 다가옴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할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 또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일오후학교

막 10:46-52

**들음에서
봄으로**

(성령18강 5.8일 설교)

예수님 당시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경에 구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경의 인생은 밑바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어느 날 ‘나사렛 예수시냐’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 외침을 들은 바디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을 보면 바디매오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 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친 것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등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소경이라는 처지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분을 만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냐’라는 외침이 들리는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시냐’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바디매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계에서 제일가는 암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암전문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저 실력 좋은 의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한 가닥 희망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병에 대해 진단이라고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 의사가 나를 살려줄 수도 있다’ 는 기대를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지금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말은 바디매오가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구출해주실 분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깊이 통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불쌍함,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디매오와 같은 간절함과 외침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통찰이 부족합니다. 남보다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으로 가득할 뿐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만만 가득 안고 기쁨과 감사가 상실된 채 근근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항상 타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싶은 욕망에 불들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쌍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이 처한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경인 바디매오가 암시하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소경으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이 소경임을 알지 못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디매오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고 꾸짖습니다. 바디매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디매오의 그 같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천한 소경이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마음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문제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앉은 자리에 향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바디매오의 간절함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매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나”고 물으시자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합니다. 소경으로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소원입니다. 즉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소경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매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디매오가 원하는 것을 이뤘 주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바디매오에게 행하실 일을 결정하시고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디매오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매오의 소원은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과 일치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 나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우리의 사정은 세상만 바라볼 뿐 하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하는 신자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오게 됩니다.

신 양생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만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

수요일설교

속 10:1-12

변성의 이유

(12강 5.4일 설교)

활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수준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해도 우리는 흠있는 자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가 생생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신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큰 힘을 이루어 헬라민족으로 치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유대인들을 용사의 칼과 당긴 화살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큰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이 이 같은 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유대 민족의 신앙이나 인간됨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도 9장의 연속입니다.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나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비는 없으면 안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없다면 그것은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소나기를 내려서 풍성한 채소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의 관계가 문제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5절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쇠하게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강성해져서 용사 같이 되게 하시고 대적들을 밟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사람은 잘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잘되고 믿지 않는 자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과 다르

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는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즉 믿음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방인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찾는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은 쇠하게 하시고 유대인은 강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 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6절)는 이 말씀에서 구별의 근거가 될 만한 말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유다 족속을 돌아오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시는 근거도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 조건이 아닙니다. 즉 긍휼히 여길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기로 작정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즉 사랑과 미움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롬 9: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착해서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택함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받게 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는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즉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미움을 받아야 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입니다.

엡 6: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총을 베푸신

이유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의 존재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은 저주가 마땅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나라에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자신의 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모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들을 모으고 번성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번성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 은총을 알고 잊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번성한다고 해도 번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성을 힘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총과 긍휼의 결과일 뿐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름과 수고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신자입니다. 자신에게는 나타낼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이 있게 한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49장

교 독 : 15(시27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45장

성 경 : 마 22:23-33

말 씬 : 부활 문제(13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4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24장

기 도 : 김정덕 집사

찬 송 : 528장

성 경 : 엡 1:15-19

말 씬 : 지혜와 계시의 영(성령 2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15강)

■ 교회소식 ■

1. 예배당의 피아노 교체를 위해 6월말까지 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금된 액수 대로 신품 또는 중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황경영 집사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⑦

그렇다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 말씀을 현실적인 삶으로 실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덮어버려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유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았음을 뜻한다. 소유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소유가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닌 다른 절대적 가치의 세계를 경험한 결과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절대적 가치의 세계에 관심을 둔다면 소유에 지배를 받으며 소유를 힘으로 여김으로써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현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소유의 차이로 인한 외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적인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도 그 격차가 차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 즉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소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 교회가 절대 가치의 세계인 천국보다 소유의 세계를 더 지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린 채 다만 종교단체로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교회는 세상을 정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정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기에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구원이나 천국 역시 돈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이라는 말도 돈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은혜고 복이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이다. 결국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은 희미해지고 대신 돈으로 굳게 서고 돈으로 사는 기존의 세계가 더욱 선명하게 자리하게 될 뿐이다. 이처럼 돈의 가치가 생생히 살아있는 교회는 제아무리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한다고 해도 위선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선인 것이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면 그 이유는 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신자의 구원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헌금 이야기가 나오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 선포해야 한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헌금 이야기를 해도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면서 감사에 의한 표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